

런던으로부터 온 7월의 문화 소식

Cool Summer in London

언젠가부터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조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난 런던. 런던의 변화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의 변화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길거리에 나가면 10개 이상의 언어가 들리는 런던의 여름은 눈요깃거리가 많은 행사들로 가득하다. 에디터 하유정 글 최영은(런던 통신원)



British International Motor Show 2008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터쇼인 British International Motor Show 2008은 세계 시장의 선두 자동차 모델은 물론, 뉴 모델 론칭과 컨셉트 자동차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세계 모터쇼를 리드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차종 소개와 전시만이 아닌 테스트 드라이브, 드리프트 같은 핸들링 기술 시현, 라이브 스텐트 쇼, 10m 언덕을 오르는 랜드로버 시범 운전, 아이들을 위한 특별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일본의 자동차 간판 브랜드 혼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특별히 로봇까지 소개한다. 스타일링, 엔진 튜닝 부품과 내비게이션 같은 옵션 부품을 전시하는 쇼핑 센터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자연을 생각하는 자동차 기술 '에코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오늘의 자동차 시장을 내다보는 특별 섹션도 있으며, 매일매일 다른 월드 가수로 꾸며지는 야외 음악 콘서트까지 준비되어 있다. 런던 ExCel에서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문의 www.britishmotorshow.co.uk, +44 (0)20 7654 0600

Totus Mundus: The Globe Theater 2008 S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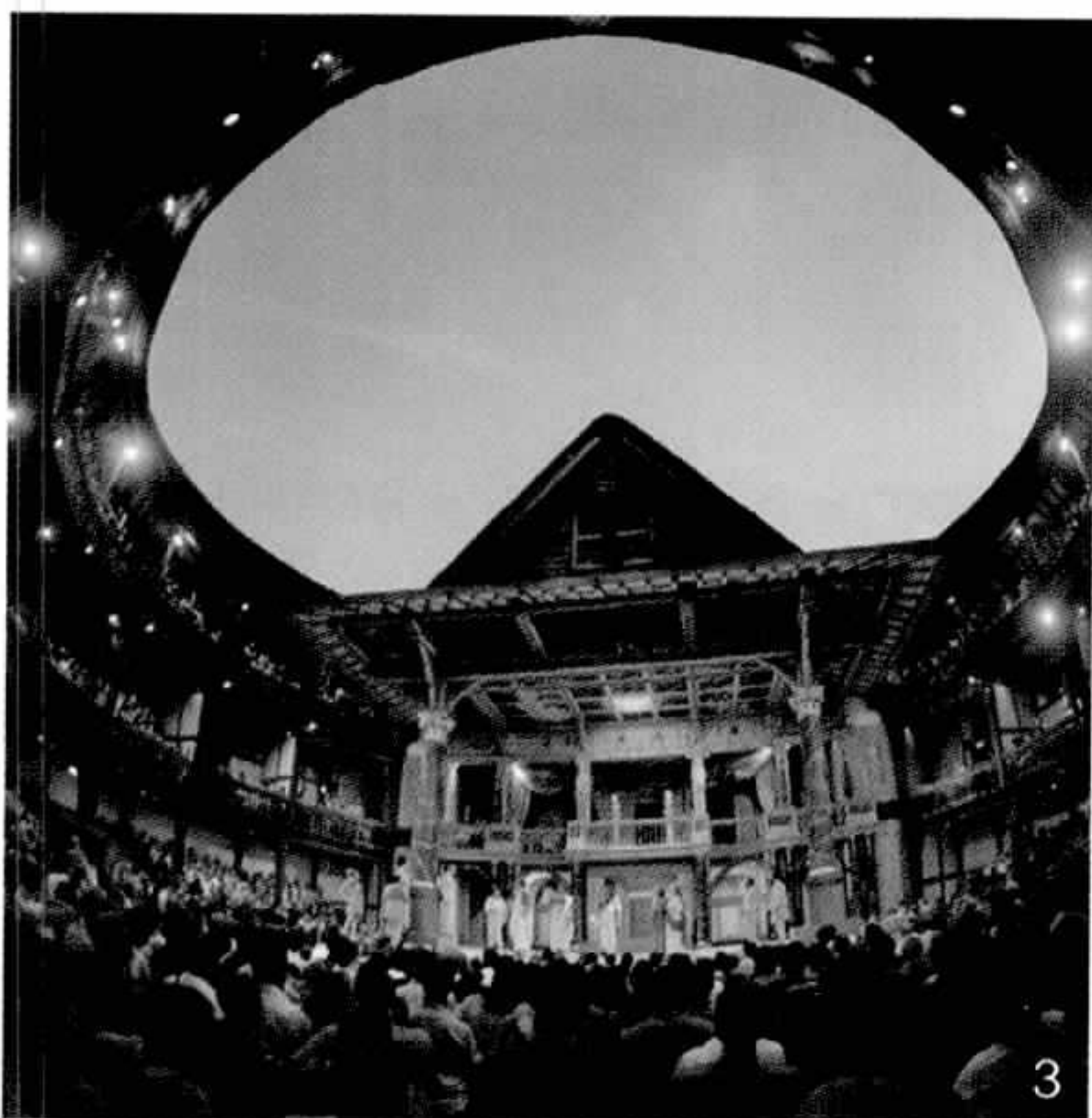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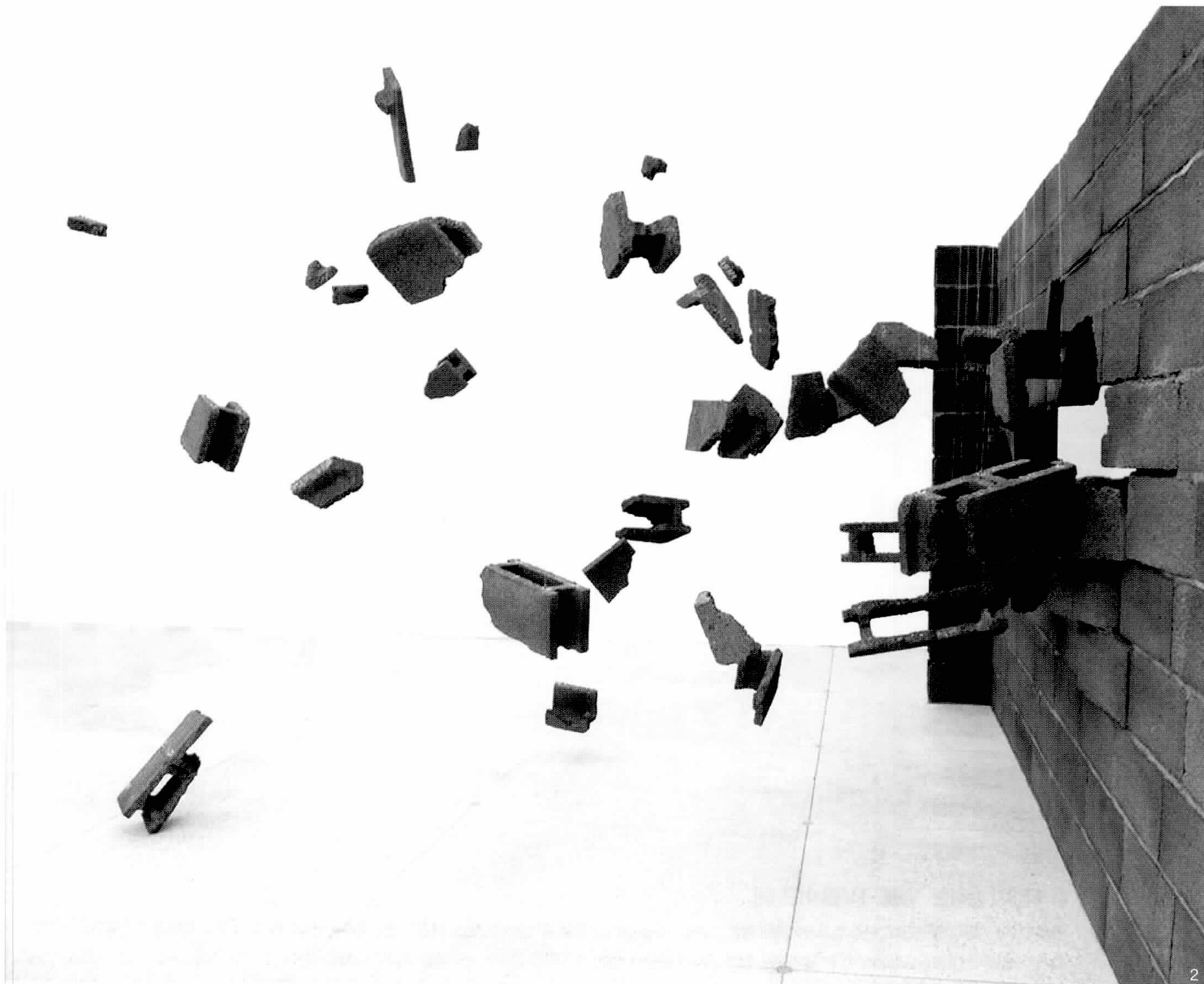
시대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 작가 셰익스피어, 그의 찬란한 상상력의 무대가 되었던 글로브 극장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지만, 영국을 방문한 어느 문학가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1993년, 바로 같은 터에 새로운 글

로브 극장을 다시 세웠다. 매년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의 다양한 마스터피스들과 새로 선보이는 현대 작품들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영국 곳곳을 돌며 셰익스피어의 연극 무대를 마련하는 투어도 함께 기획되고 있다. 2008년의 테마 'Totus Mundus'는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 엘리자베스조의 예술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온 세상은 연극 극장이다(Totus Mundus agit histrionem)'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글로브 극장의 신조다.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던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인 <한여름 밤의 꿈>, <레어왕>, <원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아테네의 타이만>과 2개의 신작들까지 2008년 시즌에는 이모토 아래 글로브 극장에서 연극 세상이 펼쳐질 예정이다. The Globe Theater에서 10월 4일까지 공연.

문의 www.shakespeares-globe.org, +44 (0)20 7902 1400

Psycho Buildings

영국 예술 세계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re)의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오픈 40주년을 기념해 특별 건축 공간 전시회를 갖는다. 현대 미술을 새로운 레벨로 이끌고 있는 것은 단면의 캔버스 또는 단순한 조각품을 벗어나서 '상황'을 캡처하고 공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설치 예술이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공간이 미술에서 어떻게



1 Rachel Whiteread, 'Village', 2006~2008. © Rachel Whiteread. Courtesy Gagosian Gallery. 2 Los Carpinteros 'Frio Estudio del Desastre', 2005 © Los Carpinteros, Courtesy Sean Kelly Gallery. 3 세계적인 천재 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새로운 글로브 극장. 4 세계 모터쇼를 리드하는 'British International Motor Show 2008'.

사용되는가를 짚어보는 이번 전시회는 인형의 집으로 만들어진 마을과 재해로 인해 파괴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방을 통해 건축과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단지 바라보는 작품이 아닌, 보는 이가 그 작품이 속해 있는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공간의 컨셉트를 거부하게 만든다. 물질적인 공간과 정신적인 공간을 넘나드는 획기적인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전시는 갤러리의 기존 전시장을 넘어서 영국 최대 규모를 자랑

하는 사우스뱅크 센터의 여러 야외 공간까지 포함되어 센터의 외관도 변신에 들어간다. 일본, 독일, 쿠바,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의 서도호 작가가 참여한다. Southbank Centre Hayward Gallery에서 8월 25일까지. ☎

문의 www.haywardgallery.org.uk, +44 (0)871 663 2500